

# 해오름평생교육교사회 창립

뜻을 함께 하실 선생님들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오름교육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갑오년입니다. 모든 만물이 열매를 맺고 힘찬 순환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환하게 빛난 모습으로 새 봄이 오면서 흐드러진 봄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꽃이 지면 여름이 오듯이 ‘끝난다’는 말은 ‘끝’에 이르러야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해오름도 소년기를 끝내고 청년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해오름은 지난 스무해 동안 부단한 걸음으로 살림교육 싹을 틔우고 어여쁜 꽃송이를 만들면서 튼실한 열매가 나오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해오름은 청년의 기운으로 이제 새로운 걸음을 다시 힘차게 내딛으며 한 차원 더 넓고 단단한 그물망을 만들고자 합니다.

**해오름은 소박하지만 튼실하고 단단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1994년 출범한 해오름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1994년 10월에 설립한 도서출판 해오름은 교사용 독서논술전문지 월간 『배워서 남주자』를 바탕으로 2005년 평생교육원을 열고 교사아카데미와 중고등 논술아카데미, 그리고 어린이 살림학교를 운영해왔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한 어린이 살림학교는 슈타이너 인지학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예술 중심의 주중 방과 후 학교와 주말학교 및 계절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소재지에 있는 폐교를 구하여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때 계절학교를 열어왔고, 봄에서 가을까지 달마다 농사, 놀이, 교육예술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습니다.

교사아카데미에서는 초등-중등-고등 논술지도자 과정과 역사논술, 토론, 글쓰기, 영화논술, 침식지도자과정, 심층독해 및 논제해제 특강, 교육예술 강좌 등 다양한 강좌를 열어 사회교육현장에서 일하시는 수많은 교사들이 참여하여 공부해왔고 또 그 만큼의 교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그간 교사양성과정을 수료하신 대부분 선생님들은 각자가 활동하는 사회와 학교 등 교육터에서 독립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해가고 있지만, 교사끼리 상생하는 구조가 없어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많았습니다. 특히 연구 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체계가 없어 늘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문제를 고민하면서 교사간의 끈끈하면서도 내실 있는 연결망을 생성하는 책임이 해오름에 요구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해오름평생교육원에서 함께 공부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해 오신 많은 선생님들이 해오름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해오름은 교사들이 각자 **고립적으로 활동해 온 일상적인 관계를 극복하고 서로의 교육적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상생적 교육관계망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뜻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혼자서 빨리 갈 수는 있지만,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평생학습사회라고 합니다. 학습은 우리말로 옮기면 “배우고 익혀 이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배움’은 ‘배어들다’의 우리말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지식과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다지는

노력을 넘어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교육적 실천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또한 내 안에 가득 스며들어 채워진 지식과 경험,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어린이와 자라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하는 운명을 지닌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먼저 어른(얼이 짝 차서 넘쳐나는 사람)으로 성장한 교사들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서로의 관계망을 통해 채우고 나누는 일을 부지런히 실천하기 위해 교육공동체를 세우야 할 때입니다.

해오름평생교육교사회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살림교육을 지향하는 “배워서 남주자” 교육 철학에 기반을 두고 모든 교사들이 “따로 또같이” 주체적으로 존재하면서 한 몸처럼 연결되고 한 뜻을 같이 펼쳐가면서 “**나와 너를 바로 세우며 이를 통해 함께 단단하게 성장하여 나누는 공동체**”를 지향하려 합니다.

해오름과 뜻을 함께 하려는 교육현장의 선생님들과 이러한 뜻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려는 분들이 두뼉두뼉 걸어가려는 힘찬 발걸음, 이제 한 걸음씩 내딛을 때마다 우리들 관계가 더욱 촘촘하고 단단하게 맺어지고 소통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 박형만 (해오름 평생교육원 으뜸일꾼)

### ● 창립 목적

1. 해오름평생교육교사회는 교사 상호간 관계망을 형성하고 개별적 교육성과를 한 울타리에 엮어 내어 서로에게 깊은 도움을 주고받는데 있습니다. 또한 “배워서 남주자”의 해오름 교육철학에 내재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며 서로를 살리려는 공동체적 살림교육”을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교육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구체적 수업안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 영역 및 교육예술영역에 해오름살림교육을 확산시키고 “**배워서 남주자**”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데 그 의의와 목적을 둡니다.

2. 해오름평생교육교사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정부 및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각 지역 도서관, 서울·경기 지역 혁신학교를 비롯한 초·중·고교 방과 후 교실 등에 해오름교육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현장에서 개별적으로 고립분산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해 왔던 교사들이 해오름교사회 이름으로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사회교육 및 교육예술영역에 해오름 평생교육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역할을 수행하려 합니다.

3. 해오름평생교육교사회는 **연구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사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참된 교육과 삶의 공동체성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해 내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도교육에 내재한 **경쟁중심의 교육적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중심의 협동적이며 상생적인 진정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구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 ● 회원 구분 및 가입

#### 1. 해누리 회원 (정회원)

(가입자격) “배워서 남주자” 해오름 교육철학에 동의하고, 2005년 이후 해오름 평생교육원 정규 지도자 과정 (초등논술지도자과정, 중등논술지도자 과정, 고등논술지도자 과정, 디베이트 전문가 과정, 역사논술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 (책임과 권리)

1. 매년 정회원 회비 납부를 의무로 합니다. 회비는 이사회) 제안을 거쳐 창립총회 의결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2. 정회원은 해오름교사회가 추구하는 대외활동에 우선적으로 파견되며, 교사회 운영에 관한 발언권을 갖습니다.
3. 해오름평생교육교사회 이름의 명함을 지급받습니다.
4. 2014년 하반기에 개설예정인 해오름평생교육원 지역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개설된 해오름지역교육센터에서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5. 교사회 총회 의결권을 갖습니다.
6. 정회원은 해오름 정규강좌를 수강할 경우 수강료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 1) 이사회

해오름 초등-중등-고등 독서논술 및 교육예술연구원, 살림학교 교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해오름평생교육원 강좌를 열거나 강의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강사진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이사회는 교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기획 조정하고 실행하는데 중임을 맡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해오름평생교육교사회를 대표하여 해오름살림교육철학을 확산시키는 일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해누리회원(정회원)의 자격을 갖습니다.

7. 해오름평생교육원이나 해오름평생교육교사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8. 교사 세미나 및 연구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주도적으로 주관하게 됩니다.

## 2. 달누리 회원 (일반 회원)

(가입자격) “배워서 남주자” 해오름 교육철학에 동의하고, 해오름평생교육원 지도자 과정을 수강 중이거나 월간 『배워서 남주자』 정기구독자 및 해오름 교육철학에 동의하시는 모든 독서논술교사 중 회비를 납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책임과 권리)

1. 매년 일반회원 회비 납부를 의무로 합니다. 회비는 이사회 제안을 거쳐 창립총회 의결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2. 해오름평생교육교사회가 운영하는 교사세미나 및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교사회 총회에 참석하여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의결권 없음)
4. 해오름평생교육원이 실시하는 지도자 과정 자격검정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정회원으로 승급자격을 얻게 됩니다.

## 3. 별누리 회원 (후원 회원, 개인 및 단체/기관)

“배워서 남주자” 해오름 교육철학에 동의하시는 모든 교육예술 및 독서논술교사 중 후원비를 납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후원회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교사회 소식지 및 교사회가 주최하는 세미나 및 주요 행사에 초대받습니다.

### ● 교사회 활동 내용

#### 1. 연구 활동

초등독서논술연구분과 / 중등독서논술연구분과 / 중고등토론수업연구분과 / 고등논술연구분과 / 역사논술연구분과 / 영화논술연구분과 / 교육예술연구분과 / 스토리텔링연구분과 / 해오름작은도서관 운영분과

※ 분기별 정기 세미나 개최: 각 연구분과는 순환체계를 통해 분기별 정기 세미나를 열어 연구 성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 2. 동아리 활동

교사회에 소속된 회원은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자율적 운영기구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를 구성할 경우 이사회에 알리

고 동아리 운영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 금요 독서회: 일정한 시간에 독서모임을 열고 모임의 성과를 교사회 소식지에 공개합니다. 해오름은 동아리 모임 공간을 제공합니다.

## 3. 교육 활동

### (1) 계절학교 운영 - 독서 토론 캠프

여름방학 및 겨울 방학 기간 동안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해오름살림학교에서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과 함께 독서토론캠프를 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 체험학교 운영

초중고 수련회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초 / 중 / 고교 수련회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합니다. 특히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 종합전형과정)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해오름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3) 교육지원활동 (외부 기관에 강사파견)

서울 경기 지역 및 각 지방 교육청 프로그램이나 각급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각 지역별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각 지역 평생학습관 강좌를 적극 이수하여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4) 교육기부 및 재능기부활동

교육기부연대 및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합니다.

### ★ 창립일정표

- ▶ 2014년 5월 12일부터 회원 가입 신청 접수

신청방법 \_ 해오름 누리집([www.heorum.com](http://www.heorum.com))에서 가입원서 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 2014년 5월 17일(토) 이사회 발기 모임
- ▶ 2014년 6월 14일(토) 창립준비위원회 모임
- ▶ 2014년 7월 5일(토)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에서 교사회 정관을 승인한 후 교사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 창립 일 년 후 2015년에는 교육부 산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각 지방에도 교사회 지부를 설립할 예정입니다.